



# 전남 6경기 연속 무승부



##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서 1-1 비겨

전남 드래곤즈가 6경기 연속 무승부 행진을 이어갔다.

전남은 9일 2006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8차전 수원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전남은 이로써 올 시즌 9게임에서 1승 8무를 기록했다.

전남은 이날 전반 11분 수원 이따마르게 선제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13분 주광윤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수원의 조원희와 박건하 사이를 뚫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유도,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주는 후반 35분 대구의 '후반전 사나이' 황연석에게 추격골을 내주고 바로 1분 뒤에 가브리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시즌 첫 승 기회를 날리고 말았다.

한편 광주 상무는 지난 8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한 골씩을 주고 받으며 1-1 무승부를 거뒀다.

광주는 전반 18분 이진호의 패스를 받은 강용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얻었으나 후반 32분 브리질 출신 공격수 제갈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밖에 성남은 경남FC를 1-0으로, 부산은 포항에 2-1로 승리했으며 울산 현대와 FC 서울은 0-0으로 비겼다.

/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 토트넘 이영표 풀타임 활약

### 팀 리그 4위 수성 도움

이영표(29·토트넘 핫스피어)가 두 차례 도움 추가 기회를 놓쳤지만 공격력을 인정받으며 팀 내 두번째로 높은 평점 8점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4위 수성에 힘을 보탤다.

이영표는 8일 밤(이하 한국시간) 홈 구장인 런던 화이트하트레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5-200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 33차전에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 교체 없이 경기를 마쳤다. 시즌 24번째 풀타임 출장.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국, 인도에 11-0 대승

### 아시아여자청소년축구

백종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청소년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청소년(U-20)선수권대회 2연패를 향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2004년 중국대회 우승팀 한국은 8일(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된 제3회대회 A조 첫 경기에서 한수 아래 인도를 맞아 11-0으로 크게 이겼다. 한국의 대들보 박은선(서울시청)은 전반 2분 팀의 첫 골을 시작으로 경기 시작 16분 만에 헤트트리를 작성하는 등 4골을 쏟아부었다. 한국은 10일 밤 8시45분 같은 장소에서 일본과 2차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주 KCC, 1차전 패배 설욕

### 조성원·민렌드 활약... 모비스 82-74 꺾어

4강 플레이오프 2차전

전주 KCC가 2005-2006 KCC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에서 1승을 만회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KCC는 9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4강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2차전에서 조성원(18점), 찰스 민렌드(26점)의 활약으로 울산 모비스를 꺾고 1차전 패배를 설욕했다.

원정경기에서 1승1패로 균형을 이룬 KCC는 11일과 13일 홈 전주체육관에서 열리는 3, 4차전에서 역전극을 펼쳐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차전을 앞두고 KCC의 허재 감독은 "오늘 우리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1차전처럼 초반에 성급하게만 하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1차전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며 무너졌던 KCC 선수들은 모비스 영건들을 능가하는 투지를 보였다.

KCC는 1쿼터를 24-21로 앞서 나갔지만 2쿼터에서 모비스 양동근의 스피드를 잡는데 힘겨워 했다.

양동근은 2쿼터 5분2초를 남기고 상대 패스를 가로채 레이업으로 연결시키며 33-31로 만드는 등 8득점했고 우지원도 3점포 2개를 포함해 8점을 보태 모비스는 전반이 끝날 때 47-42로 리드할 수 있었다. 하지만 KCC는 1차전 고비에서 수차례 자유투를 놓쳐 눈총을 받았던 아저 통이 3쿼터들어 3점슛과 골밑 슛을 번갈아 가며 상대 팀 림에 퍼부었고 조성원, 이상민이 외곽포를 지원하게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3쿼터 종료 3분14초전 이상민의 3점포로 59-55를 만들며 다시 리드를 잡았고 이후 조성원의 자유투, 통의 연속 5득점으로 KCC는 66-55, 11점까지 점수차를 벌렸다.

모비스는 4쿼터 코트를 휘저은 크리스 윌리엄스의 활약으로 2분 40초를 남기고 74-77까지 따라붙었지만 KCC는 추승균의 레이업슛과 민렌드의 3점포가 터지면서 82-74로 다시 점수를 벌려 소중한 1승을 챙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재주넘는 이따마라

9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 삼성과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에서 수원의 이따마라가 첫골을 성공시킨 후 재주를 넘으며 환호하고 있다.

## 한국 월드컵그룹 플레이오프 진출

### 데이비스컵 테니스

한국이 '간판' 이형택(세계랭킹 108위·삼성증권)의 맹활약으로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팀이 월드컵(5전3선승제)에서 월드컵그룹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한국은 9일 타이베이 테니스클럽에서 벌어진 데이비스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그룹 I 4강전 사흘째 단식에서 이형택이 대만의 예이시 왕예추(92위)를 3-1(2-6 7-6 7-6 6-0)로 눌러 전체 전적 3승1패로 남은 단식 결과에 관계없이 월드컵그룹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다.

지난 2월 인도와 1회전에서 단식 2경기

와 복식 한 경기를 따내 4강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형택은 이번에도 첫날 단식과 둘째날 복식, 사흘째 단식 등 3경기를 따내면서 팀 대들보로서 120% 임무를 완수했다.

한국은 월드컵그룹 1회전에서 탈락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8개국 중 한 나라와 추첨을 통해 9월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플레이오프에서 이길 경우 한국은 1981년, 1987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테니스 최강국만이 오른다는 월드컵그룹에 진출하게 된다.

## 박태환 男 자유형 400m 은메달

한국 수영의 '대들보' 박태환(17·경기고)이 다시 한번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박태환은 9일 밤 중국 상하이 치종경기장에서 열리는 2006 세계쇼트코스수영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 출격, 사상 두 번째 메달을 노린다.

박태환은 이를 전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땀에 겨며 얻은 자신감을 앞세워 이번에도 라이벌 장린을 따돌리고 메달 획득을 다짐하고 있다.



10일(월)

-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선수권(14 : 00·KBS2)
- ▲서울시 농구협회장기 농구대회 남고부 결승(15 : 50·SBS스포츠)
- ▲메이저리그<세인트 루이스-시카고>(08 : 50·Xports)
-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삼성-오리온스>(19 : 00·Xports)
- ▲프로야구 2군리그(14 : 00·MBC ES-PN)

**당선확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신거관보, 선거전략, 원로작성, 유세방법, TV연설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전화: 02-636-6533-4

팩스: 02-636-6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우제철 빌딩 관리사무소

연우제철 빌딩 관리사무소

연우제철 빌딩 관리사무소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전화: 061-383-8283

경동 전기보일러·온수기

보일러+온수기(16평기준) 148만원

삼우상사

전화: 0270-4242-232-8262-624-6262